

# 탄자니아

## 모로고로

### 0002센터



### “고마운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보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탄자니아 모로고로 CDP 센터의 스태프들과 윤 봉석/서 순희 기대봉사단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에 힘입어 우리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들을 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4월에 한국에 들어와 건강검진을 하던중 윤 봉석 기대 봉사단이 림프암이 발견되어 올해 5월까지 수술과 15차례의 항암치료를 받고 암이 없어 졌다는 진단을 받고 그동안 지쳐있던 몸을 쉬면서 회복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없는 동안 현지 스태프들이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었고, 한동네에 사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모 저모로 수고해 주셨으며 이 은지 선교사님, 김 상준 선교사님이 저희도 없는 가운데 맡은 어린이 사역을 성심껏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들과 기대봉사단 간사님들께 감사 드리며 다시금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8월마지막 의사 선생님의 진단결과를 듣고 이상이 없으면 9월에 임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감사 합니다.

### “후원자님의 사랑으로 공동체의 꿈나무가 자라납니다.”

#### 01 교육적 영역: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잠재된 재능과 기술을 개발합니다.

##### ■ 교과서 지원과 학용품 지원

방과후 교실을 일주일에 3번 실시 합니다. 고학년이 많아서 영어 위주로 하는데 우리 CDP어린이들의 영어 실력이 많이 좋아 졌습니다.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와 학용품, 영어 도서들을 지원했습니다.



방과후 수업 선생님과



방과후 수업에 열중인 학생들

**02 신체적 영역: 질병,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합니다.**

■ 급식

아침 일찍 식사도 하지 않고 걸어서 먼 거리를 학교로 와서 공부하고 센터에 온 어린이들에게 우선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방과후 교실을 실시 합니다. 스태프와 요리사 아주머니는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영양있는 음식을 돌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준비한 스태프들과 함께



옹기 종기 둘러 앉아 점심식사

(▲사진설명)

■ 건강검진

100명의 아동들에게 말라리아, 장티푸스, 소변검사등을 실시하였는데 25명이 말라리아가 나왔고 10명이 장티푸스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가 걸려도 교통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약을 못 사먹 습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1년에 10000실링을 넣으면 가족이 말라리아와 장티푸스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여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혈액검사를 위해 피를 빼는 아동



약을 타는 아동

**03 사회/정서적 영역: 좋은 성품과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합니다.**

■ 가정방문 및 상담

어린이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님들과 대화도 나누며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생필품을 전달하는 스태프와 학부모



가정방문중 생필품 전달

(▲사진설명)

■ 소풍

저희 동네에서 140km정도 떨어진 미꾸미 국립공원에 버스를 빌려서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며 마을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을 살펴보는 것도 즐거웠지만 국립공원안의 동물들을 보며 맛있는 점심도 먹는 아동들은 마냥 즐거워 했습니다.



버스안에서 주변을 살펴보는 아동들



물속의 하마와 악어등을 찾으며 설명을 듣는 아동들

**04 영적 영역: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 삶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보안국가)**

■ 주일학교

(지원영역에 대한 설명을 3-5줄 적어주세요)

주일학교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맛있는 급식을 하고 게임을 통하여 즐겁게 하나로 어울려 놀이를 한 후 교실에 들어가 성경공부를 합니다. 모슬렘 어린이 들도 학부모들의 동의 편지를 받아오게 하여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킵니다.



주일학교 프로그램중 게임으로 즐거운 시간



주일학교 프로그램중 성경공부시간

(▲사진설명)

"지금 이 순간 한 생명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을 살려냅니다."  
기아대책이 꿈꾸는 미래는 굶주림을 겪는 모든 아이들과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어 또 다른 공동체를 돕는 것입니다.